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R&D지원 공고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선도기업 발굴·유치 목표... 사업별 최대 3억 사업비 지원·이달 30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고도화와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신성장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을 1일 공고했다.

'첨단바이오육성 R&D지원사업'은 전북자치도의 첨단바이오 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선도기업을 발굴 및 유치하고 지속적인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가 전략 기술(바이오), 첨단 바이오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 융합 분야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도내 소재 기업 중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출연 연구소 및 유관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전주, 익산, 정읍시와 투자협약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의 소재 기업도 한시적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유형은 △첨단바이오 R&D △바이오 융합 R&D △글로벌 협력 Pre-R&D이며 △첨단 바이오 R&D는 국가 전략기술(바이오), 첨단바이오육성의 분야를 지원하며 △바이오 융합

R&D는 건강 기능성식품, 의료기기 등 융합 분야를 지원한다. 글로벌 협력 Pre-R&D는 해외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글로벌 협력 사전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R&D 유형은 최대 3억원/년, 바이오 융합 R&D는 최대 2억원, 글로벌 협력 Pre-R&D는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 바이오 R&D의 경우 유전자 치료제, 재생치료제 등 고도화된 기술개발로 개발 과정과 임상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1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md.jbtp.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s://www.jbtp.or.kr>) 사업 안내 게시판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바이오방위산업과 윤세영 과장은 "이번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유수의 바이오 기업이 도내로 유입되길 기대하며 첨단바이오산업 기반 육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정성기(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성공할 기업)를 맞이하고, 전북자치도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전북테크노센터에서 '2024년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

대상은 '동물 의약·식품 성분정보 상세 검색 플랫폼 개발팀'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전북테크노센터에서 '2024년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자치도,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에서 공동 주관하였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과 도정 혁신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대회는 총 35팀이 참여했으며,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으로 나뉘어 경연이 이루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총 10개 팀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 참여한 '동물 의약·식품 성분정보 상세 검색 플랫폼 개발팀(김선호 외 4명)'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동물통합관리시스템(이성원 외 2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고객 방문 예측 및 리워드 최적화 솔루션(이준석)', '눈이 아닌 귀로 열어가는 쇼핑의 혁명(김도균)' 등 총 5개 팀이 입상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도시 재생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윈스톱 집수리 서비스팀(이선호 외 2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총 5개 팀이 입상했다.

특히,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수상작 2개 팀은 다음 달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2회 법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출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폭염 대비 대책 긴급 회의 개최

도내 폭염피해 발생에 따라 주요 관계부서와 폭염 대처상황 점검·대응계획 논의 최병관 행정부지사 "폭염 3대 취약계층 예찰활동·건강관리 철저 토록 조치" 당부

전북 14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 온열환자 및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계부서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계부서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지역에서는 온열질환자 64명, 가축 4만4,022두 등 폭염 피해가 집중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81명, 사망 1명 등과 비교해 온열질환자가 적으나 최근 기온이 상승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근로자, 고령 농업인, 취약계층 등 3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이동장·자율방재단 등)를 활용한 예찰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야외 건설장의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폭염취약시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물, 그늘, 휴식)를 안내

하고, 심각 단계 시 공사 시간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무더위쉼터 6,039개소에 대해서는 에어컨 가동상태 및 적정온도(26~28℃) 유지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전면 개방하도록 하고, 전광판, 마을 방송 및 재난 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오늘 폭염 대비 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온열질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폭염취약시간(오후 2시~5시) 야외 활동 자제하도록 예찰 및 홍보를 강화해 달라"며, "건설사업 야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30일부터 폭염 대응 비상 1단계 가동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등이 협력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이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온열질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폭염취약시간(오후 2시~5시) 야외 활동 자제하도록 예찰 및 홍보를 강화해 달라"며, "건설사업 야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30일부터 폭염 대응 비상 1단계 가동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등이 협력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 적극행정 지원 위한 사전 컨설팅 사례집 배포

사례집을 통한 유사 업무·민원 등 신속 처리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북자치도 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 79개 기관에 배포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사전 컨설팅 감사 도입 배경 및 신청 대상, 처리 절차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진행된 236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 중 주요한 62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공무원들이 업무 및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 분야, 계약·회계 분야, 국·공유재산 분야, 보조금 분야, 국도·건설 분야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김진철 사무국장은 "사전 컨설팅 감사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더욱 지원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전북자치도당, 내일 원광대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오는 3일 오후 2시30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전북도당 제1차 정기당원대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1부 정기당원대회에는 전북자치도 소속 당원 및 전국대의원,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전북자치도당위원장에는 이원택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에 등록해 관리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부 후보자 합동연설회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정청래·고민정·서영교·전은수·강민구 최고위원과 김윤덕 사무총장,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 이개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한다.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의 선거인단은 관리당원(100%)으로 구성되며,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로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는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국가의 미래 위한 중요한 첫 걸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열려

"지속가능 성장 발전 전략 제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창립총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준비위원회(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정진욱)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기후 위기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류성민 경기도 교수(한국기업경영학회)는 '대전환의 시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세계적 대전환 속에서 "국가가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포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럼 및 창립총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책 모색

전북자치도의회 경산건위, 긴급 간담회 개최·기업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의원)는 1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도내기업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김대중 위원장(익산 1·더불어민주당) 등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 송수섭 기업애로해소과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부 원장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등 관계기관과 도내 피해기업 관계자 2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플랫폼 판매지원 사업을 통해 티몬 164개사와 위메프 235개사에 입점되어 있는 도내 중소기업 중 지난달 31일까지 파악된 피해기업은 45개사 62억 원이고, 개별 입점업체 피해 입은 기업은 3곳 42억 원으로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기업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간담회에서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와 경진원이 타 시·도보다 먼저 지역 내 피해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정부 지원 외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경진원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해서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존 융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지원 △피해 관련 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 역시 최소화해서 피해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기존 재단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체 재원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경제산업건설위원들은 피해기업 2개사를 방문해 관계자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